
부 록 : 미국 401(k)의 디폴트옵션 정책

연금전환과 관련해서 디폴트옵션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401(k)의 다른 영역에서 디폴트옵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¹⁾.

401(k)의 디폴트옵션 정책은 인간 행동에 존재하는 타성의 힘을 인지하고 이를 저축을 저해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일련의 자동화 프로그램(automatic program)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제도 가입, 기여와 투자가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 단계에 대해 프로그램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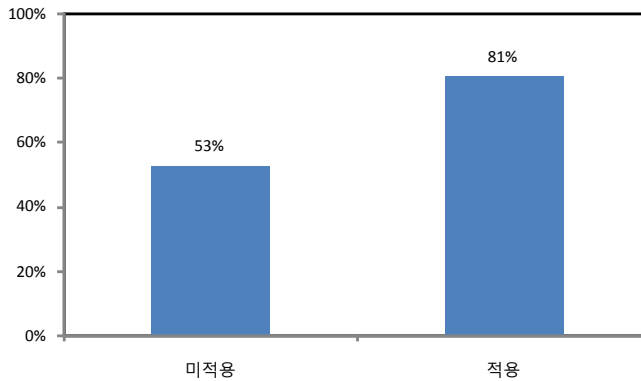
401(k)의 첫 단계인 등록²⁾부터 기여율 수준 결정, 투자 선택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적절한 디폴트옵션을 제시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디폴트 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에는 401(k)에 등록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므로 근로자가 401(k)에 가입하려면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제시된 펀드들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서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가입 절차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가입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 한 특정 기여율 및 자산배분을 요건으로 제도에 가입됨을 알린다.

이러한 디폴트 규칙의 변경을 통해 401(k) 가입률이 크게 높아졌다(Madrian and Shea, 2001; Choi et al., 2006). Fidelity 분석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자동가입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체의 가입률은 53%에 불과한데 비해 자동가입을 실시하는 사업체의 가입률은 81%에 달한다.

1) 이에 대해서는 이경희·최이섭(2010)을 참조하십시오.

2)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임의가입이므로 우리나라의 DC와 달리 근로자가 401(k)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부록 그림-1〉 자동가입 적용 여부에 따른 401(k) 가입률



주 : Fidelity(2007)

자동가입은 가입률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가입자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디폴트 기여율(예: 2%, 3%)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여율을 자동으로 높이는 점진적 저축 증대(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스스로 임금 인상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기여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자동투자는 근로자들의 자산배분 관련 전문지식이 높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를 높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제공하는 펀드 수를 늘리기보다는 다양한 수준의 위험회피성향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펀드를 제시하였다. 이들 펀드들은 이미 분산투자 기능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면 되고, 일부 펀드들은 가입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부록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자동기여율인상, 자동투자 등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delity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자동가입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66%(=6%+38%+1%+21%)가 자동기여율인상도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63%(=6%+38%+19%)는 자동투자를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가입제를 채택한 사업장 중 자동기여율인상과 자동투자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2005년 27%에서 2006년에는 44%(=6%+38%)로 높아졌다.

〈부록 표-1〉 자동가입제 채택 시 자동기여율인상 및 자동투자 활용도

자동가입제도	자동기여율인상	자동투자	비중
Yes	Opt out	Yes	6%
Yes	Opt in	Yes	38%
Yes	None	Yes	19%
Yes	Opt out	No	1%
Yes	Opt in	No	21%
Yes	None	No	15%
전체			100%

자료 : Fidelity (2007)

자동이전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0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규모 적립금이 퇴직자산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퇴직연금제도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IRA 이전이 디폴트옵션으로 설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인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소규모 적립금도 IRA로 자동이전된다. 2005년 3월부터 \$1,000~\$5,000 규모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자동이전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IRA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401(k) 관련 디폴트 옵션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리하면 〈부록 표-2〉와 같다.

401(k) 관련 디폴트옵션 정책은 주로 민간 부문 즉,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채택을 저해하는 제반 장벽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6년 8월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을 계기로 디폴트옵션 설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동 제도의 활용이 장려되었다. 자동

가입과 관련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는 급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디폴트 투자옵션의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수탁자 책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호법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RISA)이 주법에 우선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가입을 합법화시켰고, 자동가입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디폴트 투자옵션으로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펀드를 제공할 경우에도 수탁자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연금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9월 자동화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추가로 공표함으로써 제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요인들을 해소시켜 주었다.

〈부록 표-2〉 401(k) 관련 디폴트옵션 정책

프로그램	내용	정책 효과
자동가입 (automatic enroll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1(k)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가입시킨 후 탈퇴 여부 선택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기간 내 자동 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시점을 앞당김 가입률 증대 취약 계층 효과 높음
자동기여율 인상 (automatic esca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인상 시 기여율을 자동으로 높임(4% → 5% → 6%) 가처분소득의 절대금액은 감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nguard, TIAA-CREF, Fidelity 등 많은 운용사들이 채택 대기업의 37% 정도가 채택 4년 경과 후에도 90% 정도 유지
자동투자 (automatic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옵션을 확대하는 것보다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킨 투자상품을 제시 자사주에 대한 투자 제한 자산배분 변경횟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프 사이클 펀드, 밸런스형 펀드, 매니지드 어카운트 등 활용
자동이전 (automatic roll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IRA로 이전 2005년 3월부터 \$1,000에서 \$5,000까지 규모의 일시금에 대해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A 활용도가 높아짐
자동지급방식 (automatic payout)	논의 중	불분명

〈부록 그림-2〉 OMO 시스템의 연금전환 조건 예시(1)


[Help & Support](#) | [Media Centre](#) | [Cymraeg](#) | [Contact us](#)
 [f](#) [t](#)

Home	Your money	Parents guide to money	Divorce & separation	Comparison tables	News	About us	Working with us
Comparison tables home	Help using this site	Useful links					

You are here > [Choose a product](#) > [Compare Annuities](#)

Annuities

Compare Annuities

[More about pension funds](#)

So that we can give you the most useful information on annuities,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you won't see](#)

[Compare Annuities](#)

You should know

The products you will see are not recommendations. You should always confirm the product details with the provider or an adviser.

Email us

For queries about this website please e-mail us at tables@moneyadviceservice.org.uk

- Are you
 - Male
 - Female
- At what age do you intend to buy a lifetime annuity?
- What is your full postcode?
- Are you a smoker?
 - Yes
 - No
- How much of your pension fund will you use to buy a lifetime annuity? Please enter the amount after taking off any tax-free lump sum you will take.
- Do you want to see rates for lifetime annuities with a guaranteed term?
 - No guarantee
 - 5-year guarantee
 - 10-year guarantee

주 : 영국의 Money made clear (<http://www.moneymadeclear.org.uk>)

〈부록 그림-3〉 OMO 시스템의 연금전환 조건 예시(2)

Email us

For queries about this website please e-mail us at tables@moneyadviceservice.org.uk

4. Are you a smoker? ?
 Yes No

5. How much of your pension fund will you use to buy a lifetime annuity? Please enter the amount after taking off any tax-free lump sum you will take. ?
 £

6. Do you want to see rates for lifetime annuities with a guaranteed term? ?
 No guarantee 5-year guarantee 10-year guarantee

7. Do you want to see the rates for a lifetime annuity that is: ?
 Single life Joint life

8. What age will your spouse or partner be when you take your annuity? ?
 You don't need to complete this question

9. What level of income do you want your spouse or partner to receive when you die? ?
 You don't need to complete this question

10. How would you like to sort your results? ?

[Show me annuities ▶](#)

[Terms and conditions](#) | [Privacy Policy](#) | [Accessibility](#) | [Site map](#)



주 : 영국의 Money made clear (<http://www.moneymadeclear.org.uk>)